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남궁역 의원 외 49명
- 의안번호 : 제807호
-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0일
-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2. 제 안 이 유

- 기후변화 및 탄소저감 대응에 따라 가로수 수종 선정시 탄소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녹지 확충을 위해 도로의 교통섬에 그늘목 식재, 화단 조성 등 다양한 가로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가로수 수종 선정시 환경오염 저감, 기후 조절 기능과 함께 탄소 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제1항제4호).
- 나. 기후변화 대응, 녹지 확충, 경관 향상 등을 위해 중앙분리대 뿐만 아니라 교통섬에도 그늘목, 녹지대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 6조제1항제3호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및 탄소저감 대응에 따라 가로수 수종 선정 시 탄소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녹지 확충을 위해 도로의 교통섬에 그늘목 식재, 화단 조성 등 다양한 가로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환경문제로 인한 도시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, 대기정화와 기후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과 녹지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음.

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, 도시바람길 숲, 생활밀착형 숲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희지 조림, 도시숲, 생활숲 등에 나무를 심어 탄소흡수 기능을 지속해서 확대·유지관리 해나간다는 목표이나, 아직까지 탄소흡수원 정책은 대부분 산림 위주로써 도시지역에서의 확충 계획은 많지 않은 상황임.

- 푸른도시여가국은 서울시의 도시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‘그린 인프라’로서의 공원녹지 기능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, 그 중 기후변화에 따른 ‘탄소중립’을 위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.

가로수는 도시지역에서 녹지를 확보해 숲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써 향후 탄소흡수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연구가

필요한 시점이지만, 아직까지 서울시는 탄소흡수량 산정에 대한 구체화된 정책과 추진계획은 없는 실정임.

- 안 제5조는 가로수 수종 선정 시 탄소흡수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환경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, 서울시는 가로수가 탄소흡수원으로써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.